

미국 전몰장병 추모 메시지

오늘 뜻깊은 미국 전몰장병 추모일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미군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리온 라포트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이 우리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 등 양국간의 안보현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 동맹관계는 이처럼 매우 굳건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국 전몰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